

이준원·손연경·  
동인·서인 선교사  
선교편지

# 캄보디아에서 보내는 희망의 메세지...

Vol.03 2021.8.29

쭈뼌 쭈어! ជំនាបស្ស័្ស គុក ឆ្លើបាយ ឆ្លើប ពេ?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원 선교사입니다.

성도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한국은 그 무더운 여름 날씨도 이제 지나가고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네요...저도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곳 캄보디아에서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잘 이겨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서늘한 가을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듯 우리 마음에도 답답하고 킁킁한 무더위가 지나가고 곧 새롭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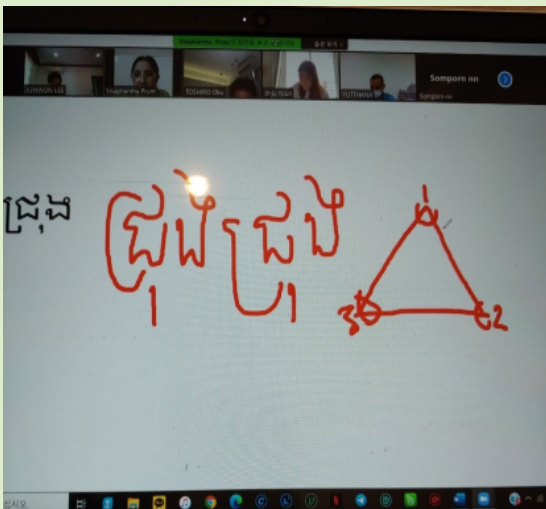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37>

## 본격적인 언어훈련이 시작되다...

그동안 프놈펜 왕립대학교에서 진행해 오던 크메르어 훈련 코스가 코로나의 여파로 학교의 문을 닫으면서 외부학원(KLC)에서 하는 언어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왕립대학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Zoom"으로 수업이 시작되어서 본격적으로 크메르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 어려울 수 있는 수업인데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언어훈련을 잘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면 모든 일에 동참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보게 되어 집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1-2>



왕립대학교(IFL) "Zoom" 영상으로 수업중

병실 부족으로 복도에서 치료받는 할머니

캄보디아 우기(5월~10월)



## 지역연구를 통해 만난 사람들...

캄보디아 지역연구를 시작하면서 여러 지역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프놈펜 인근 마을부터 찾아가 보았습니다. 지역연구(문화,종교,인구분포,지형 등)를 통해 이곳 현지인들 속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가갈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땅 낮은곳으로 친히 오셔서..죄인 된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신 예수님처럼 부족한 선교의 발걸음이 향방 없는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더욱더 낮은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1:10)



죄를 씻는 의미의 전통의식을 하는 모습

시장에서 맛있게 먹었던 캄보디아식 호떡

웃음으로 맞아 주신 아저씨

## 시골 마을을 방문하다...

요즘은 주말을 이용해 시골 마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마을에도 방문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문을 열고 있지는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마을을 방문하였고 먼저 오셔서 선교하시는 선배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29)



시골 어느 가정에 우물을 퍼 올리는 모습

시골 마을 어느 가정에 놓인 변기

영어공부 하러 모인 동네 아이들



# 동참...

어느날 아침...눈을 뜨자마자 저의 입에서는 계속 어떤 노래 가사가 흘러나왔습니다. "너 고통당할때...너 고통당할때...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그러자 제목이 "동참"이라는 예전 최덕신씨가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듣고 저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의 고백과 함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저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동참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너 고통 당할 때, 너 고통 당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너 짐 지고 갈 때, 너 짐 지고 갈 때 주님이 너의 짐을 가볍게 하시며  
 너 슬플 때에, 너 슬플 때에 주님이 위로의 눈길로 너와 동행하신다.  
 너 외로울 때에, 너 외로울 때에 너 어찌 홀로 있다 하는가  
 너 괴로울 때에, 너 괴로울 때에 너 어찌 혼자 있다 하는가  
 너의 모든 것을 동참하시는 주님을 너 바라보라" <동참> -최덕신-



빗물을 모아 사용하는 빗물 향아리



귀엽게 이방인을 바라보는 아이

# 기도제목.....

1.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유입으로 더욱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2. 언어훈련 왕립대학교(IFL) 외부어학원(KLC)에서 하는 언어훈련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3. 지역연구를 통해 캄보디아를 더 많이 알게 하시고 이들 가운데로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4. 한국에 남은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기도하고 동역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5. 캄보디아 우기(5월~10월)에는 비로 인한 많은 피해가 있는데 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